



청송심씨 심벌마크

#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대평  
편집인 : 편집장 심규선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화 : (02) 2267-7857  
(02) 2267-9339  
F A X : (02) 2269-7755  
인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51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1년 9월 30일(목)

## 진포대첩 총사령관 심덕부 장군 위상 제대로 찾기로 1380년 군산서 왜군에 대승했는데 최무선 장군의 부하처럼 표기

대중회는 9월 7일 송조사업 축조심의회(위원장 심재덕)를 열고 전북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진포대첩기념탑' 안내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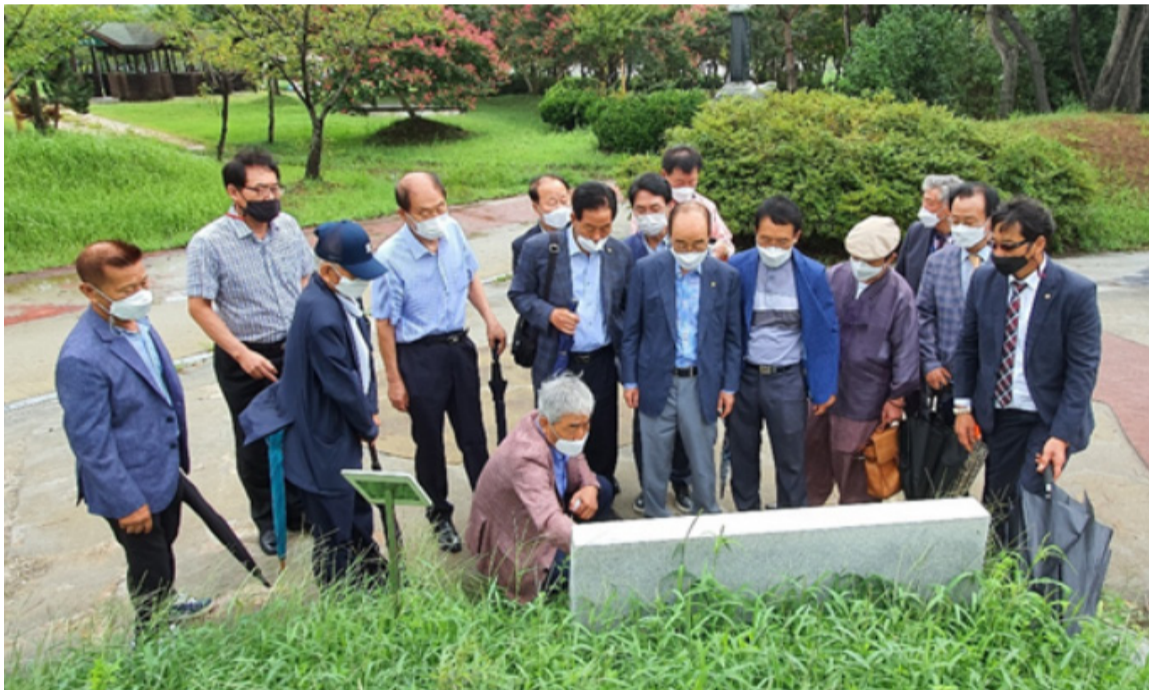
진포대첩은 고려 우왕 6년인 1380년 진포(지금의 군산)에서 고려 수군이 처음으로 화약을 이용해 왜구를 크게 무찌른 해전이다. 당시 왜군은 500여 척의 배를 타고 최소 2만 5000여 명이 침략했다. 군산은 1999년 개항 100주년을 기념해 이 기념탑을 만들었다.

이 대첩의 도원수가 심덕부(沈德符), 상원수가 나세(羅世), 부원수가 최무선

(崔茂宣)이었다. 그런데 화약을 만든 이가 최무선이라서 그런지 진포대첩비의 설명문은 "이때에 최무선 장군은 나세, 심덕부와 더불어"라고 표현하고 있다. 마치 심덕부와 나세가 최무선의 부하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대중회는 "최무선 장군의 공적은 공적대로 인정하되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는 안내문이 잘못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군산시청에 안내문의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군산시청에 진포대첩의 총사령관인 청성백 심덕부 장군의 동상건립도 건의할 방침이다.

〈2면에 관련기사〉



대중회 간부들이 8월 27일 진포대첩을 승리로 이끈 장수들의 위계를 잘못 설명한 안내판을 살펴보고 있다.



1999년 군산개항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진포대첩기념탑



9월 7일에 열린 송조사업 축조심의회

### 죽계공 심규 어른 공적비 건립키로

송조사업 축조심의회는 2세조 함문지후공의 묘소를 찾아내 보존하는데 힘쓴 죽계공 심규(沈圭) 어른의 공적비를 함문지후공 재실(전북 익산시 함량로 634)에 건립키로 했다. 다음은 공적비 문안이다.

### 죽계공 심규(1684~1755) 공적비

2세조 함문지후공의 묘소는 1377년(고려 禔王3년) 9월12일 산음현(山陰縣, 현 경남 산청)에서 함열 남당산으로 청성백(靑城伯 諱 德符)과 악은공(岳隱公 諱 元符) 형제 두 분께서 천장하시었다

그후 임진왜란(1592) 등 여러 병란을 겪으면서 실전(失傳)되어 경향(京鄕)의 후손들이 묘소를 애타게 찾던 중 1705년(숙종 31년)에 전라도 임피현에 살던 죽계공(竹溪公 諱 圭)이 옥구향시(沃溝鄕試)에서 만난 김린(金璘)으로부터 함열 남당산에 2세조의 묘소가 있음을 전해 듣고 그 소재를 알게 되었다.

이후 죽계공은 경향(京鄕)의 종친들에게 연락하고 10여년에 걸쳐 산송을 진행하여 2세조의 묘소를 다시 찾았다. 이 과정에서 참판 단(檀), 담양군수 증량(仲良), 상윤(尙尹), 상정(尙鼎) 등 문중 원로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다.

죽계공 심규(竹溪公 沈圭)는 5세조 안효공의 5대손인 양지공 심업(陽智公, 沈業)의 6대손으로 1684년(숙종 10년)에 출생하시어 1755년(영조 31년)에 서거하시었다. 2세조 함문지후공의 묘소를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찾고, 10년여에 걸친 산송(山訟, 묘지소송)을 감당한 죽계공의 투철한 승조위선(崇祖爲先)의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이에 공적비를 세운다.

2021.10.16

청송심씨대중회 세음

신문 사랑의 첫 걸음 《청송심씨정보 1가정 1부 구독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12면에 관련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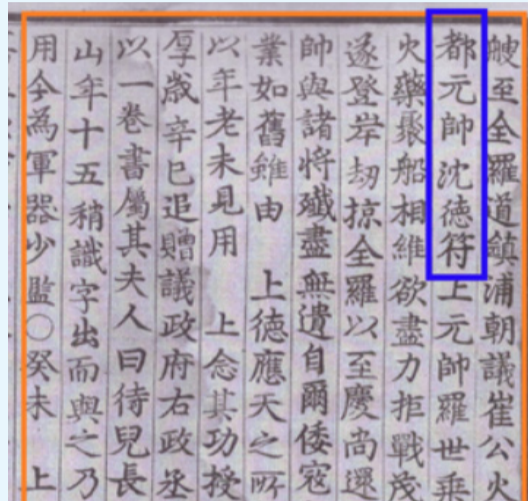
# 沈영감 심민섭



## 태조실록에 '도원수 심덕부' 기록 선명

심덕부 어른이 진포대첩의 도원수였다는 사실은 태조실록 7권에 또렷이 기록돼 있다.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신년 가을에 왜선 3백여척이 전라도 진포(鎭浦)에

침입했을 때, 조정에서 최무선의 화약을 시험해 보고자 하여, (무선을) 부원수로 임명하고, 도원수 심덕부, 상원수 나세와 함께 배를 타고 화구를 싣고 바로 진포에 이르렀다.



'도원수 심덕부' 라고 기록하고 있는 태조실록



진포대첩에 참가한 장군의 위계를 잘못 설명한 안내문



8월 27일 군산 진포대첩 기념탑을 방문한 일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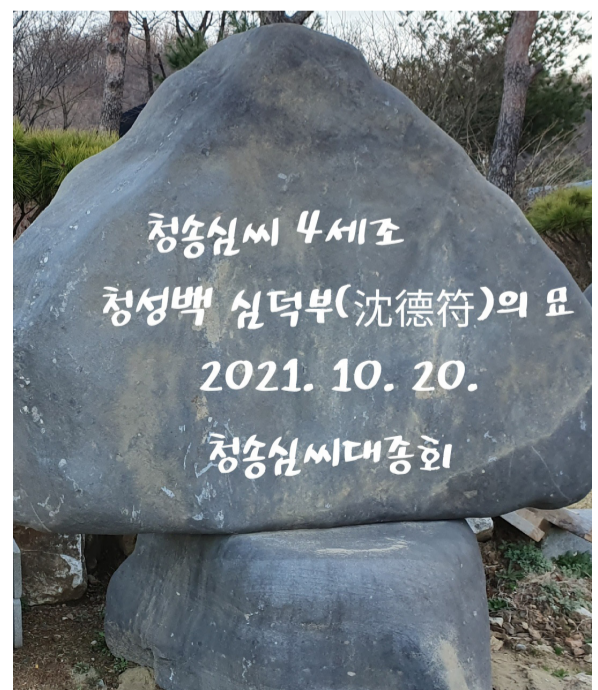
앞줄 왼쪽부터 문섭 청수회 전북위원회 총무, 성식 청수회 광주전남위원장, 전북종회 상엽, 상희, 수영 회장, 대평 대종회회장, 13상신승조사업TF 재득 위원장, 대산타워 재웅 회장, 우경 고려대 명예교수, 관섭 청수회 전북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규정 대종회 재무이사, 재월 대종회 재산관리위원, 전북종회 재영 총무, 향보 재무, 해구 전진스틸 부사장, 한철 청수회 전북부위원장

## 경기 연천 청성백 묘소에 안내석 설치... 연천 군수 만나 협조요청

송조사업 축조심의회의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번지에 있는 청성백 묘소 아래에 묘소 안내석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청성백의 위상에 비해 안내와 주변 정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심대평 회장 일행은 9월 24일 김광철 연천군수를 만나 연천군향토문화재 제29호 (2017년 12월 13일 지정)인 청성백 묘소의 진입로 확장과 주변 정화 사업을 요청했다. (사진)

묘소 안내석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실물이 아님).



안내석 앞이미지)

자랑스러운 일가를 찾아서 - 심상조 대우토건 회장

# “정직, 원칙, 상식이 통하는 건설업계가 평소 소신”

##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으로 제살 깎는 저가입찰 자제 운동

무리를 지어 세를 과시하지 않으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다. 건설업계는 한층 더 하다. 하지만 그런 관행을 거부하고 깨끗하고 당당한 기업을 지향하며 정직·원칙·상식을 기반으로 토건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있다. 요즘에는 광야에서 홀로 외쳐온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이제는 사업을 확장하기보다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심상조 대우토건 회장을 만나 봤다.



심상조 회장은 “바른 경영을 포기하지 않고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경영인”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어떤 연유로 토건회사를 차리게 됐는지요.**

“청송심씨 관향 청송 산골에서 태어나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마침 청송 심문

**심상조 회장이 걸어온 길**

1954년 경북 청송에서 태어났다. 1985년 건설업에 뛰어들어 이후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기본과 원칙을 포기한 적이 없다. 심 회장은 이런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인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등 각종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건설산업의 위상까지 높여왔다. 1996년에는 수질오염방지 전문업체인 경우크린텍을 인수해 전국 500여 곳 낙후지역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역의 장학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신기술과 신공법도 동종업계와 공유하는 등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에도 충실하다. 2013년 11월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을 맡아 전문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쇠신하기 위해 처음으로 '건설상생발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런 문제의식과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집안 형님의 부름으로 건설업에 뛰어들어 15년 정도 사업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업은 큰돈을 만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창업 기회가 와서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오너가 되면서 ‘건설업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고 인간의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이다’라는 경영철학을 갖게 됐고, 그 경영철학을 정직, 원칙, 상식으로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어려움도 있고 보람도 있었을 텐데.**

“건설 발주기관은 예산절감을 위해 저가낙찰을 고수하고, 건설사들은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적정공사비에도 못미치는 낙찰가에 응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 저가덤핑의 악순환이 건설경영자에게는 최대의 어려움입니다. 이런 상황은 비리나 부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술개발과 경영혁신, 친환경공법개발 등으로 정면 돌파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수질오염방지 전문업체 경우크린텍 인수, 신기술과 신공법의 동종업계 공유, 2014년 건설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훈 등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뻐던 것은 이런 업적을 포괄적으로 인정받아 2016년 안양대학교 제67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명예공학박사를 받은 일입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의 업적은.**

“그 자리에 취임하고는 뺏속까지 원칙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사익에 눈이 멀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스스로 경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던 협회 제공 차량, 운전기사, 연료비 등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모든 걸 개인경비로 충당했습니다. 회장이 출선수범하니 협회 임직원들도 허투루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업적이라면 ‘건설상생발전위원회’ 신설을 꼽고 싶습니다. 저가하도급과 관련해서 종합건설사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종합건설사들은 목숨 걸고 공사를 따내 협력사들에 일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저가하도급의 빌미는 우리 협력사 스스로가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 저가하도급에 응찰을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전문건설업계가 덤핑낙찰에 응하지 않으면 종합건설사도 원도급공사 할 때 덤핑 못 하고, 발주기관도 공사비를 후려칠 수 없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권한대행도 역임하였는데, 그 당시 전국 전문건설인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실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유실수는 다 자랄 때까지는 토양과 자연에서 자양분을 얻기만 하지만, 다 자라면 인간에게 유용한 과일을 제공합니다. 나눔도 같은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성장한 기업주로서 사회 공동체에 이익을 환원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청송심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25년 전쯤 지역감정이 예민할 때 영업차 전북 전주 시장통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이 꼬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처음 만난 심씨 일가 형님이 나타나서 ‘내 동생’이라며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준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시하는데, 나는 혈연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생각에서 청심회(서울 청송심씨모임) 창립 멤버가 되었고 2대 회장을 맡았는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2019년 10월 청송에서 열린 초유의 청송심씨 한마음대회 집행위원장으로서 ‘개회 선언’을 한 것도 인생 최대의 영광이었습니다. 재경 청송향우회장도 지내고 현재는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이사도 있습니다. 최근 대종회가 구성한 중증재산관리위원회에도 참여할 생각입니다. (심 회장은 2019년 한마음대회 때 2천만 원을, 2020년 장학기금으로 500만 원을 기부했다.)”

**청송심씨가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최근 대종회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해 많은 일가가 참여해서 의견을 결집해가는 의사결정구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파중회를 따지지 않고 ‘청송심씨는 전부 일가’라는 생각하는 풍토가 확산하고 있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초유의 한마음대회 개최, 문중 최초의 장학재단 설립, 심문(沈門) 달력 제작, 종보의 획기적 개선 등은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합니다. 이러한 시도와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일가들이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심상조 회장은 2016년 안양대에서 명예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본인의 경영철학과 상생노력, 신기술 개발 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21)

## 557편의 교훈이 되는 이야기 모아 세상을 밝히다

『송천필담(松泉筆談)』을 지으신 양졸재 재(鏜) 할아버지



沈厚燮

아동문학가·대구문인협회장

명보(明輔)야, 너는 ‘윤희(尹淮)와 거위’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겠지?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초등학교 국어책에도 실린 적이 있어.

윤희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집이 가난하여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어. 어느 날 한양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 한 부잣집에 들어가 머물기를 청했어.

그런데 주인은 윤희의 행색을 보더니 재워 줄 수 없다고 했어. 그러자 윤희는 헛간에서 자도 좋다면 겨우 허락을 얻었어. 헛간 기둥에 기대어 잠을 청하려는데 마당에 있던 거위가 무엇인가를 쪼아 먹는 게 보였어. 그것은 주인집 딸이 잃어버린 귀한 구슬이었어.

잠시 뒤 방 안에서 부산한 소리가 울려나왔어. 부자의 어린 딸이 구슬을 잃어버렸다면 울어대기 시작한 것이었어.

그러자 윤희는 도둑으로 몰려 헛간기둥에 묶이게 되었어. 이에 윤희는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테니 거위도 묶어 옆에 함께 두도록 부탁했어.

그 구슬은 이튿날 아침 거위의 똥 속에서 나왔어. 주인은 미안해하며 “왜 어제 저녁 진작 말하지 않았소?”라고 했어. 그러자 윤희는 웃으면서 “그렇다면 저 거위가 지금까지 살아있었소?”라고 대답했다는 거야.

그래, 이 이야기는 어떤 일이든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

입으로만 전해지고 있던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청송심가 재(鏜) 할아버지란다. 재 할아버지의 증조부는 창수(昌壽), 할아버지는 창(昶), 아버지는 유행(儒行)이시고, 어머니는 권씨(權氏)이시. 그리고 자(字)는 문숙(文叔), 호(號)는 양졸재(養拙齋)이시란다.

재 할아버지는 1624(인조 2)년에 태어나서 1693(숙종 19)년에 69세의 연세로 돌아가셨는데, 1654년(효종 5)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검열을 지내셨고, 1663년(현종 4)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오셨어. 1667년 교리(校理)를 거쳐 승지, 경기 관찰사,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셨고, 1677년(숙종 3) 사은겸동지부사(謝恩兼冬至副使)로 청나라에 가셨다가 이듬해 귀국하셔서 대사간, 경기관찰사, 도승

지, 공조판서 등을 지내셨어. 그러니 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신임을 받으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

그러면서도 일찍부터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모아 『송천필담(松泉筆談)』이라는 책을 지으셨어.

이 책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여러 문헌 및 향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학문·정치·경제·설화 등을 기록한 책인데, 권1에는 ‘구양공독서법(歐陽公讀書法)’ 등 124편, 권2에는 ‘퇴계언행록(退溪言行錄)’ 등 126편, 권3에는 ‘택리지(擇里志)’ 등 168편, 권4에는 ‘인생천지내(人生天地之內)’ 등 139편 등 수많은 이야기가 실려 있어. 중심 내용은 선비들의 수신과 제가에 필요한 것들로서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서가 되고 있단다.

이 중에서 「구양공독서법」에서는 독서하는 방법과 순서를 밝히면서 고전(古典)의 글자 수를 전부 셈하여, 『효경』 1,903자, 『논어』 1만 1,705자, 『맹자』 3만 4,685자, 『주역』 2만 4,107자, 『서경』 2만 5,700자, 『시경』 3만 9,234자, 『예기』 9만 9,010자, 『주례』 4만 5,806자, 『좌전』 19만 6,845자임을 밝히고, 하루 300자 정도 읽게 되면 1,597일이 걸리며, 약 5년 정도면 경전을 독파할 수 있다는 설명도 붙이고 있어.

‘조중봉(趙重峯)’이라는 이야기에는 선조 때 조헌(趙憲)이 지식이 뛰어나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그 부인에게 무거운 짐을 이게 하고 길 걸기를 연습시켰으며, 또한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

가 치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늘의 복이니 나라에 변고가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 그 뒤 왜군이 갑자기 쳐들어오자 의병을 일으켜 적과 싸우다가 금산에서 부자가 함께 전사하였다고 기록하셨어.

이 이야기에는 항상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어.

‘남사고(南師古)’ 편에서는 남사고라는 지관(地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남사고는 그 재주가 뛰어나서 아는 것이 풍수지리에만 그치지 않았고, 일찍이 이황(李滉)에게 글을 배워 학문도 능하였으므로 호를 격암(格菴)이라 하였으며, 선비들이 추종하였다고 적으셨어. 또한 이수학(理數學)에 정밀하여 앞일을 잘 알고 있었는데, 늙을 때까지 과거를 여러 번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사람에게는 때가 있으니 묵묵히 그것을 기다릴 뿐이라고 대답했다고 적으셨어.

이 이야기에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

이 밖에도 많은 실화와 학설, 그리고 송시열(宋時烈), 이이(李珥) 등 여러 선비의 행적을 많이 기록하셨어.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남긴 책을 한번 읽어보아야 하겠지. 그리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어 우리 들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거야.



송천필담 표지(서울 규장각 소장)



송천필담 권1 본문

선조의 숨결을 찾아서

# 전남 곡성에 공숙공(휘·회) 유희비가 있는 까닭은

## 칩거한 계기는 확실치 않으나 후손들이 비 세우고 정성껏 관리



심재석  
역사학자

### 1. 곡성에 터잡은 후손들이 1909년에 세워

전남 곡성군(谷城郡) 고달면에 공숙공(恭肅公) 심회(沈滄 · 1418~1493) 할아버님의 유희비가 있다. 공숙공이 이곳에서 지낸 적이 있다는 뜻인데 현재로서는 알만한 기록이 없다. 공숙공이 머물렀던

이곳에 터를 잡은 후손은 공의 7대손 심찬(沈縑)으로, 직계 후손들이 1909년에 공숙공 유희비를 세웠다.

### 2. 유희비의 내용은 이렇다

문종이 즉위하자 공숙공과 정이공(靖夷公, 휘 決) 선조를 음직으로 정6품직에 임명했다. 이후 공숙공의 관직 생활은 순항을 계속해 3년 만에 종2품에 이른다. 공숙공은 세조 즉위에 공이 있어 순의청성위(順義靑城尉 · 휘 安義 · 세조의 딸 정안옹주의 남편) 선조와 함께 원종공신에 봉해졌다. 이후 49세에 정1품의 좌의정에, 다음 해엔 영의정에 올랐다. 이 시기에 이시애난을 평정한 것은 일생의 대사였으나, 셋째 아들인 내자시판관공(휘 潓)이 난리를 진압하던 중에 숨지는 불행을 겪었다.

이러한 이력의 공숙공이 곡성에는 언제 무슨 이유로 거주했는지 알려진 게 없다. 곡성 고달리는 남원과 경계지역이고 걸어서 오갈 수 있다. 멀리 경계선 넘어로 춘향골이 보인다. 이런 연유로 옛 남원부 지도는 곡성 고달리를 '고달방(古達坊)'으로 표기하고 있다.

현재 유희비는 비각과 비석이 잘 보존돼 있으므로, 우선 유희비 탁본을 본보에 게재해서 후대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유희비 후면(비문). 비신 45cm×145cm, (2021년 5월 30일 필자 탁본)

### 〈유희비 번역〉

여기는 우리 선조 영의정 공숙공 유희이다. 호남의 대방 소재지 남쪽 40리 둔산 아래 호락산이 있는데, 산에서 밭 갈고 물에서 낚시하며 바람을 읊고 달을 노래하는 의취가 옛날 망천과 반곡보다 못하지 않다.



1909년 전남 곡성에 세운 공숙공 심회 유희비 전경(2021년 5월 30일 필자 촬영)

(공숙공은) 세상에 나아가서는 조정을 바라고 물러나서는 산수의 즐거움을 누리며 그대로 이곳에 머물렀다. 동네 이름을 '농은(農隱)' 이라고 하였으니, 그 깊은 정취가 이 말에 들어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소명(召命)을 받고 서울로 올라갔으니, [용성지]에 실려 있다. 그 후 7세손 사복시정 심찬(沈縑)이 또 선장(先庄)을 따라 내려와 자손들이 그대로 세거한 것이 어느덧 지금 수백 년이 되었다.

서울과 지방의 후손들이 선조가 거닐던 곳을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을 두었는데 그 빈 터에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겨를이 없었다. 몇 해 전에는 같은 후손 중친들이 편지를 보내 일을 의논하였으나 또한 정성을 다하지 못하였다. 매우 개탄스럽고 한스럽지만 또 빨리 일을 마치기를 천명하여 논의하였으니, 선조를 추모하고 후손들을 계도하는 도리에 있어서 더욱 영광이다.

### 3. 공숙공 45세(1462년, 세조 8년) 전후에 곡성 은거한 듯

공숙공이 언제 어떤 이유로 곡성의 고달리에 은거했는지 기록이 없으나, 유희비문에서 단서를 잡을 수 있다.

동네 이름을 '농은(農隱)' 이라고 하였으니, 그 깊은 정취가 이 말에 들어 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소명(召命)을 받고 서울로 올라갔다.

위 기록을 보면 관직 생활 중 한때 곡성에 머물렀던 것은 확실하나 그 시기는 알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공숙공의 이력을 찾아보면 45~46세와 57세~58세 무렵의 기록이 없다. 두 시기 중 57세 때는 구미 선산의 양모(養母) 시묘살이를 했다. 그러므로

45세 무렵, 실록에서 공숙공에 관한 기록이 없는 공백기에 고달리에 머문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 사건이 은거의 계기가 됐을지도 모른다. 공숙공의 구사(丘史, 관청에서 준 노비) 이종실(李從實)이 종친부 종5품인 효자(孝慈)를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보고 받은 세조가 이종실을 목매달아 죽였고, 이후 2년간(45~46세) 공숙공에 관한 기록이 실록에 없다. 필자는 공숙공이 이 시기에 곡성의 고달리에 낙향해서 머리를 식혔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인연이 있어서 다른 장소가 아니라 '고달리'로 왔는지는 알 수 없다.

### 4. 유희비 보존 노력

경북 구미의 선산에 공숙공의 시묘암이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전남 곡성군 고달리에 공숙공이 머물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후손들은 공숙공의 고달리 은거 생활을 기념해 1909(융희 3년) 마을 안쪽 산 아래에 유희비를 건립했다. 비문을 쓴 이는 심건택(沈健澤)이다.

1972년에 고달리 초대면장을 지낸 심상호 씨 등이 주도해 유희비를 마을 앞길로 이전하고 비각을 설치했다. 그 후 비각이 퇴락해 고심하던 차에 2016년 고달리 심기섭 씨 등이 파주 공숙공종회에 참석해 회장과 총무 등에게 실정을 알렸다. 이에 종회는 2016년 비각을 중수하고 나무도 심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고를 통해 공숙공의 발자취와 유물을 추가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종회탐방 - 안효공파옥현문증을 찾아서

# 270년 전 포항 장기현으로 유배 온 선조의 후손들

## 유배 온 선조 마음 헤아려 '심해용 카페' 만들어 보본반시 정신 실천



옥현문증 심덕보 총무(오른쪽 ·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가 장기현 유배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1. 선조 유배지를 세거지로

안효공과 옥현문증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조선 영조 때 '이색(李穡)'의 역모사건'에 연루돼 1745년(영조 21) 포항 장기현(長鬐縣)으로 유배 온 여수공(汝受公 · 휘 海容)과 그 아들들 만나게 된다. 여수공은 안효공(휘 濶)의 13대손이며, 풍덕공(휘 筍)의 7대손으로 17세조 통덕랑공(通德郎公 · 휘 一柱)의 아드님이다.

여수공을 유배로 몬 이색의 모반사건은 그 17년 전인 1728년(영조4) 3월에 일어난 무신난(戊申亂 · 이인좌의 난)과 관련이 있다. 무신난 가담자들의 후손인 이색과 이염 등이 1745년 10월에 또다시 모반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영조의 친국을 받았다. 무신난에 연루되어 유배 중인 자들에게 모반을 획책하는 편지를 보냈다가 고변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색은 무신난의 주모자인 이순관(李順觀)의 조카로 남인계열이었다. 이색 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능지처사나 국문으로 사망했다. 이때 여수공 심해용은 역적으로 몰린 이색의 7촌 생질로서 여러 차례 영조의 친국을 받고 경상도 장기현으로 유배된 것이다.

여수공의 유배 당시 그 아들인 옥현공(휘 格)이 부친을 수발하기 위해 당시 19세의 나이로 본가인 서울 양재에서 유배지인 장기현으로 내려왔다. 유배 생활을 뒷바라지하던 중 여수공이 52세로 생을 마감하자 옥현공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부친의 유배지에 터전을 잡았다. 역모가담자의 자제로 관직에 나갈 수 없는 처지여서 초야에 묻혀 살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그 이후 약 270여 년이 흐르면서 10대(代)에 걸쳐 100여 명의 후손이 번성해 대부분은 포항과 경주 일원에 거주하고 있고, 일부는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살고 있다. 안효공과 옥현문증을 결성 한 것은 선조의 유배생활에서 입은 고초와 입향조 옥현공 할아버지의 효심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자라온 근분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보본반시(報本反始)라는 말을 실천한 것이다.

### 2. 장기 유배문화 체험관 개설

포항시는 2019년 3월 22일 국내 3대 유배지로 유명한 장기면에 장기 유배문화 체험관을 개관했다(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 452, 문의 054-270-6662).

조선왕조실록 등에 따르면 장기로 온 유배인은 모두 149회 200여 명에 이른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암 송시열과 다산 정약용이다. 포항시는 이들의 사상과 문학을 기리기 위해 유배문화체험촌을 기획했다. 당시 중앙정계에서 내로라하던 정객들이 머물면서 학문연구와 문풍이 살아난 대표적인 지역이 이곳 장기면이기 때문이다. 유배문화 체험관에는 순조 때 배천군수를 지낸 심의경에 관한 유배기록도 있다. 그러나 그의 본관이나 후손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장기면은 장기읍성, 장기향교, 서원 등 역사의 현장과 신창 일출암, 소봉대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이다. 장기면은 또 예전부터 유명한 해돋이의 명소였다. 육당 최남선은 일출암 일출을 '조선 십경' 중의 하나로 꼽았고, 회재 이언적은 장기읍성의 일출을 보고 '장기동헌'이라는 시를 남길 정도였다.

장기유배문화체험관에는 유배생활에 대한 벽화와 실제 유배지를 재현한 가옥들이 있어 예전 유배제도가 있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곳에서는 그네 타기, 투호 던지기 등의 전통놀이와 함께 곤장, 주리, 칼 등의 형벌도 체험할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이 쓰던 절구, 맷돌 등 요즘 볼 수 없던 예전 물건도 많이 볼 수 있다.

### 3. 장기 유배인 심해용기념관 카페

장기유배문화 체험관으로부터 약 150m 부근에 안효공과 옥현문증에서 운영하는 '장기 유배인 심해용기념관 카페'가 있다(장기로 413번길 16).

여수공은 생전에 부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嗚呼痛哉 不肖子海容 當其時 蒙幼無所知 先人善行懿蹟 不能度輯玆藏 左所痛心 僅以平昔 承問於先妣之言 諸父之教 泣血謹誌如在 以俟後之立言

"아, 슬프고 원통하여 마음이 아프다. 불초자 해용이 그 당시 어리고 잘 알지 못한 관계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훌륭한 행적을 수집하고 간직하지 못하여 매우 마음이 아프다. 겨우 예전부터 들어온 어머니 말씀과 여러 어르신의 가르침으로 이를 알게 되니 피눈물이 흘러서 이와 같이 기록한다. 이러한 아픈 마음을 후손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여수공의 이런 마음을 후손들이 기억하고자 8대손인 상보(祥輔) 옥현문증 회장(010-8900-5762), 덕보(德輔 ·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前 청송경찰서장) 총무 등은 종회를 결성해 법인등록을 하고, 종회사업으로 '장기유배인 심해용 기념관 카페'를 운영하게 됐다

심해용기념관 카페는 여수공의 유배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소상하게 정리해서 전시하고 있다. 전시 내용은 '영조 시대 역모사건의 이해', '심해용(沈海容)은 누구인가', '심해용 추국기록', '감등 및 석방기록' 등 영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을 바탕으로 여수공의 유배에 관한 전모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는 포항시의 유배문화 체험관에는 없는 내용들이다.

'장기유배인 심해용 기념관 카페'는 청송심씨 후손과 국가유공자 내방객에 대해서는 차값의 50% 특별 할인도 해 주고 있었다.

옥현문증 후손으로는 덕보 포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보 프루덴셜생명보험 부장, 경보 LG전자 부장, 성태 ICB 금융사업본부 부장, 은명 육군 중령 등이 있다. 이외에도 후손들은 공무원, 교사, 회사원, 자영업 등에 종사하면서 송조돈목(崇祖敦睦)의 정신으로 선조를 받들고 종원간 친목에 애쓰고 있다.

(취재=심규섭 오산사복시정공종회 총무)



위 사진은 카페의 문패. 아래사진 왼쪽부터 심현림 기념관카페 사장, 심상익 대종회 문화이사, 심덕보 옥현문증 총무(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보 옥현문증 회장, 심규섭 오산사복시정공종회 총무.

일가기업탐방 - 주식회사 천연기업

# 석제품 생산부터 시공까지... 기술력 차별화로 성공

## 어려운 여건에도 인화, 책임, 기술로 동종업계 대표주자 자리 굳혀



심광부 회장

### 1. 심광부 회장의 경영철학

천연기업은 심광부 회장이 39년 전인 1982년에 창업한 석제품(화강석) 제조 및 시공회사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의 본사 집무실에는 창업 이후 바뀐 적이 없는 사훈(社訓)이 걸려 있다. 인화단결, 책임완수, 기술혁신이 그것이다. 심 회장은 여기에 더해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심 회장은 올해 팔순이 됐지만 요즘도 빠짐없이 본사에 정시 출근해 포천공장과 양주공장을 순회하며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장남 심판섭 부사장(50)의 경영수업도 철저히 시키고 있다. ‘제가 물려받은 기업이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

기 때문에 후계자는 강한 정신무장과 리더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게 심 회장의 지론이다. 더욱이 석재사업은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국내 인력도, 해외 인력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잘 대처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천연기업의 제2공장.

### 2. 천연기업의 성공 스토리

천연기업은 자체 석산(돌산)을 보유하고 다양한 석제품을 생산해서 시공까지 하는 전문기업으로서 동종업계 대표주자다. 석재업계 최초로 한국품질협회인 증 KS A-9002와 ISO-9002를 획득했고, 1995년 석재산업 발전 공로로 통상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천연기업은 1982년 2월 창립 이후 매년 성장을 해오면서 경기도 양주군 남면 상수리 제1공장에 이어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가양리에 7,000여 평의 제2공장을 마련했다. 제1공장에도 약 5,000평의 기존공장에 새로운 공장 2개 동을 신축했다. 이곳은 100인치 문형절삭기를 비롯해 건축용 판재와 경계석 전문 생산라인, 자동연마기, 자동버너기 등을 완비하고 있다.

천연기업의 보유하고 있는 석산은 포천시 창수면의 제2공장에 있다. 이곳에서 매월 1,700㎡의 원석을 채취하여 양주와 포천공장에서 다양한 석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양주 제1공장은 연간 건축용 판재 8만㎡와 보도와 차도 경계석 14만 개를 제작하고 있고, 포천 제2공장은 화강과 보도·차도 경계석 전용 공장으로서 연간 생산량이 32만 개에 달한다. 또 무역업 을류 업체로도 등록해 다양한 외국산 돌도 수입하고 있다.

이 기업의 특징은 채석장과 석재공장은 물론 시공까지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고품질의 석제품을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전문적인 노하우로 시공까지 해서 경쟁력 차별화와 기업의 가치 제고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2011년에는 잡월드가 선정한 ‘베스트 600 기업’에 선정됐고, 2006년에는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관광부장관의 감사패를 받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강릉시청과 서울중앙우체국 등 석공사와 관련

한 풍부한 시공실적도 자랑하고 있다. 천연기업은 자투리 산업 폐석의 일반폐기물 전환과 포천 석재단지 지정 등 석재업계의 숙원을 해결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 2년마다 새로 채석장 허가를 취득해야만 했던 행정력 낭비는 포천 석재단지 지정을 통해 해소했고, 전국석재공장의 최대 애로사항인 자투리 폐석의 일반폐기물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썼다.

### 3. 기업인의 자세와 역할

천연기업은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동부건설, 코오롱건설 등의 우수협력업체로서 수차례 중소기업 파인 패밀리(fine family)로 선정됐고,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감사패 등을 받는 등 성실한 기업정신과 책임경영으로 신뢰를 쌓아 왔다.

또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봉사에도 적극적이어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 양주경찰서장 등으로부터 감사패도 여러 차례 받았다. 심 회장은 공장 주변

마을주민들 과도 친근하게 지낸다. 1997년 9월 포천군 창수면 가양리 마을회관 신축,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에도 앞장서고 있다.

심 회장은 지난해부터는 청송심씨 대종회에도 관심을 갖고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인 재육성사업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업이 모두 어렵다고는 하지만, 천연기업은 창업주 심광부 회장이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후계자인 심판섭 부사장의 젊은 의지를 합친다면 석재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겠다는 목표 달성도 머지않아 보였다.

(취재=심오택 (재)청심장학회 운영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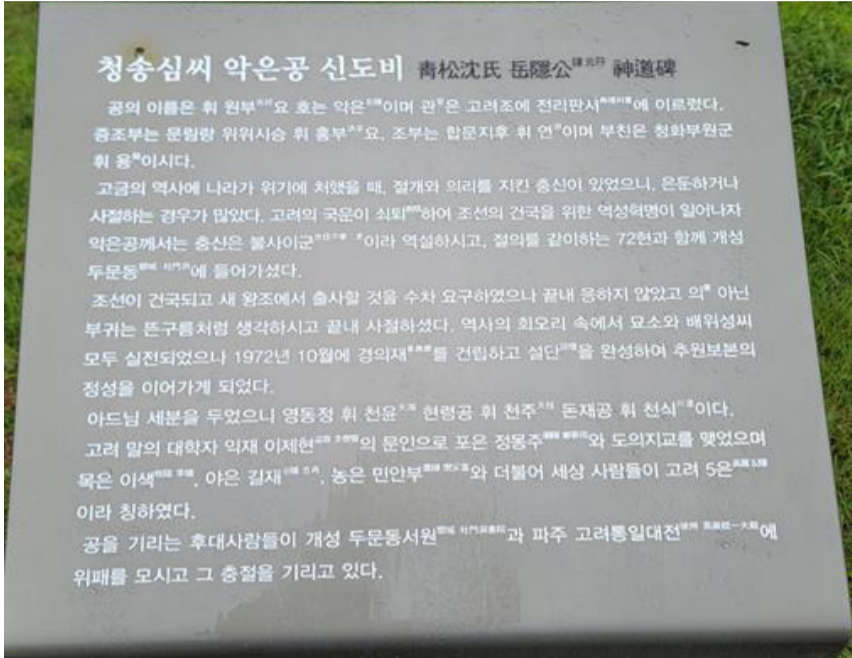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천연기업 본사에서, 왼쪽부터 심판섭 천연기업 부사장, 심상익 대종회 문화이사, 심광부 천연기업 회장, 심오택 (재)청심장학회 운영위원장(前 국무총리비서실장), 심해철 이사

지파종회소식 - 이런일 저런일

# 4세조 악은공 휘 元符 신도비 안내문 설치 (8월 14일)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길 89 경의재 (악은공종회 총무 광섭)



〈신도비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송심씨 악은공 신도비 靑松沈氏 岳隱公 諱 元符 神道碑  
 공의 이름은 휘 원부 元符요 호는 악은 岳隱이며 관 官은 고려조에 전리판서 典理判書에 이르렀다. 증조부는 문림랑공 위위시승 휘 홍부 洪孚요, 조부는 합문지후 휘 연 淵이며 부친은 청화부원군 위 용 龍이다.  
 고금의 역사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절개와 의리를 지킨 충신이 있었으니, 은둔하거나 사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의 국운이 쇠퇴 衰頹하여 조선의 건국을 위한 역성혁명이 일어나자 악은공께서는 충신은 불사이군 忠臣不事二君이라 역설하시고, 절의를 같이하는 72현과 함께 개성 두문동 開城 杜門洞에 들어가셨다. 조선이 건국되고 새 왕조에서 출사할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고 의 義 아닌 부귀는 뜯구름처럼 생각하시고 끝내 사절하셨다.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묘소와 배위 성씨 모두 실전되었으나 1972년 10월에 경의재 景義齋를 건립하고 설단 設壇을 완성하여 추원보본의 정성을 이어가게 되었다.  
 아드님 세 분을 두었으니 영동정 휘 천윤 天潤 현령공 휘 천주 天柱 돈재공 휘 천식 天湜이다.  
 고려 말의 대학자 익재 이제현 益齋 李齊賢의 문인으로 포은 정몽주 圃隱 鄭夢周와 도의지교를 맺었으며 목은 이색 牧隱 李穡, 아은 길재 冶隱 吉再, 농은 민안부 農隱 閔安富와 더불어 세상 사람들이 고려 5은 高麗五隱이라 칭하였다.  
 공을 기리는 후대사람들이 개성 두문동서원 開城 杜門洞書院과 파주 고려통일대전 坡州 高麗統一大殿에 위패를 모시고 그 충절을 기리고 있다.

시조 문림랑공 휘 洪孚 묘소 사초 (5월 20일)  
경북 청송군 청송읍 덕리 산33 보광산(유사 상복, 훈섭)

2세조 봉익대부공 휘 晟 설단 (9월 9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791 (철원종회 총무 동섭)

4세조 청성백 배위 청주 송씨 (9월 9일)  
충북 청주시 분평동 산8 (청주종회 사무국장 재훈)



4세조 청성백 휘 德符 묘소 일원 정리 (9월 5일)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555 (유사 재봉)

5세조 인수부윤공 휘 潑 묘소(8월 28일)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산141 (인수부윤공종회 총무이사 재구)

5세조 안효공 휘 溫 묘소 (9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13-10(안효공종회 총무이사 원섭)



7세조 이경공 휘 瀚 묘소(9월 5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50-9(이경공종회 총무 춘섭)

8세조 호양공 휘 順徑 묘소(9월 5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산리리 산27-10(경공종회 총무 춘섭)

9세조 수찬공 휘 達源 묘소(9월 6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산 96번지 (수찬공종회 총무 재성)





청송신문 사람들 - 이런 일 저런 일

# 부친의 유언에 4형제가 뜻 모아 장학금 기부



부친의 유언에 따라 장학금을 기부한 일가가 있어 화제다. 다음은 7월 31일 장학금 100만원을 대종회에 기부하며 함께 동봉한 형제들의 편지이다.

“저희 아버님 故 沈仁求 대종회 이사님께서서는 1990년대 初부터 수단요원 겸 서기를 맡아 대동세보 편찬에 적극 참여하시는 등 대종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셨습니다. 평생을 靑松沈氏 人壽府尹公派 24代孫임을 자랑스러워 하였고, 오랫동안 공직과 농장경영, 또 대종회의 소임을 맡아 일하시면서도 자손들에게 靑松沈氏 가문의 자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시고 뿌리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특히, 임종을 앞두고 집안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장학금을 기부하여 후손 인재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대종회 장학사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간곡히 당부 말씀을 남기시고, 2012년 3월 14일에 향년 87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자식 沈賢植, 沈重植, 沈勤植, 沈明淑은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부하게 된 것이며, 앞으로도 심문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종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세계한인회총연합회(The World Assembly of Korean Associations) 심상만 초대 회장(10월6일)



청송 찬경회관 심상칠 신임관장 위촉장 수여 (8월23일)



왼쪽부터 청송 청장년회 상걸 신임 사무국장, 청송군의회 상휴 부의장, 재덕 대종회 부회장 겸 안동종회장, 청송 찬경회관 상칠 신임관장, 청송 청장년회 상압 신임회장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출마선언 (8월 29일)



심후섭 중보편집위원 제7회 전영택문학상 수상 (9월4일)



책발간 민족문화연구원 심백강 원장



## 2021년도 하반기 인사발령

〈대구소방안전본부〉(7월1일)  
◇ 소방령 전보 ▲ 소방본부 현장대응과 심춘섭

〈광진구〉(7월1일)  
◇ 5급 전보 ▲ 청소과장 심규홍

〈도봉구청〉(7월1일)  
◇ 행정 5급 승진 △ 평생학습체육과장 심재열  
〈아산시청〉(7월1일)  
◇ 전보 ▲ 의회사무국 심용근

〈제천시청〉(7월3일)  
◇ 5급 전보 ▲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남해군〉(7월6일)  
◇ 5급 전보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심재복

〈부산광역시〉(7월 7일)  
◇ 3·4급 전보 ▲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재민 ▲ 세정 운영담당관 심재승

〈울산광역시〉(7월 14일)  
◇ 6급이하 전보 ▲ 환경국 심은미

〈울산광역시 중구〉(7월 14일)  
◇ 6급이하 승진 ▲ 공원녹지과 심효준

〈울산광역시 남구〉(7월 14일)  
◇ 6급이하 전보 △ 세무1과 심재훈

〈금융결제원〉(7월 29일)  
◇ 팀장 신임 ▲ 디지털금융부 심희원

〈순천대학교〉(8월 5일)  
▲ 학생처장 심상덕 ▲ 산학협력부단장 심현 ▲ 정보전산원장 심춘보

〈법무부〉(8월25일)  
◇ 전보 ▲ 전자감독과장 심선욱

〈광주광역시교육청〉(9월1일)  
◇ 초등 교감전보 ▲ 광주방림초 심용철

〈강원도교육청〉(9월1일)  
◇ 초등 교감 승진 ▲ 심선우 영월군(원주시단구 초등학교)

〈충북도교육청〉(9월1일)  
◇ 초등 학교장 승진 ▲ 진천 학성초 심미경

〈충남도교육청〉(9월1일)  
◇ 중등학교 교감 전보 ▲ 부석고 심규호  
◇ 도교육청 장학관 ▲ 학생지원팀장 심순희  
◇ 교육지원청 과장 ▲ 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심상주

〈전남도교육청〉(9월1일)  
◇ 초등 교육전문직 전보 ▲ 여수심재욱 ▲ 광양심준주  
◇ 중등 교감전보 ▲ 완도수고 심태순  
◇ 교감 전직 ▲ 순천 심지은

〈경북도교육청〉(9월1일)  
◇ 초등 교장 전보 ▲ 풍천풍서초 심상영

◇ 교감 전보 ▲ 경산교육지원청 심영희  
◇ 장학사 발령 ▲ 울진교육지원청 심미희

〈경남도교육청〉(9월1일)  
◇ 초등교장 전보 ▲ 합천 야로초 심병용 ▲ 김해 김해모산초 심숙조

〈동국대학교〉(9월1일)  
◇ 경주캠퍼스 ▲ 학생서비스팀장 겸 참사람사회 공헌센터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심규택

〈한국예술종합학교〉(9월1일)  
◇ 보직 임명 ▲ 영상원 영상이론과장 심광현

〈울산과학기술원(UNIST)〉(9월1일)  
◇ 보직 임명 ▲ 정보바이오융합대학장 심재영(인공지능대학원 교수)

〈대전 동구청〉(9월1일)  
◇ 보직 ▲ 효동 심민섭

〈국세청〉(9월1일)  
◇ 사무관 승진 ▲ 부산지방국세청 심희정

〈한국광해광업공단〉(9월13일)  
◇ 처·실장급 전보 ▲ 사업관리실장 심권용

농협 창립 60주년 기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2021.8.23.)  
▲ 심재훈(광주광역시 광산) ▲ 심재천(부산 남부 산농협 상임이사)

2022년 달력 이렇게 만듭니다

## 내년 달력 “나라 안에서 제일” 현재 심사정 그림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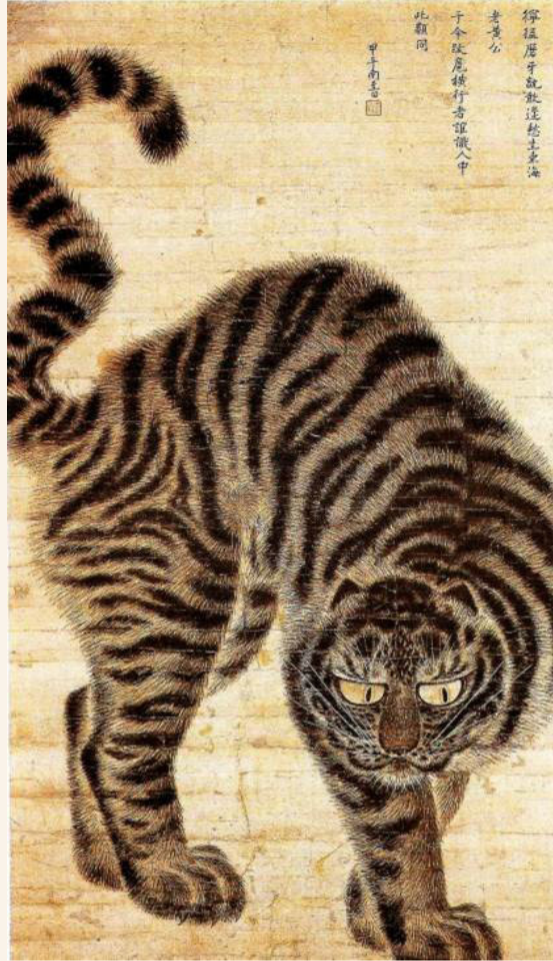
대중회는 2021년부터 달력을 만들어 일가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심문달력 디자인위원회(위원장 심익섭)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달력을 어떻게 만들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그 결과 우리 선조 중 조선 화단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현재 심사정(玄齋 沈師正 · 1707~1769) 어른의 작품으로 달력을 만들기로 했다. 그림으로 달력을 만드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훌륭한 조상의 탁월한 그림으로 대중회가 달력을 만드는 것은 뜻깊은 일일 것이다. 심사정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달력에 실을 그림 일부를 게재한다.

### 현재 심사정은 누구인가

1707년(숙종 33년)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이숙(頤叔), 호는 현재(玄齋)이다. 조선 후기 화가 겸재(謙齋) 정선(鄭敼), 관아재(觀我齋) 조영석(趙榮祐)과 더불어 3재로 일컬어진다. 심사정의 증조부 만사(晩沙) 심지원(沈之源)이 영의정을 지낸 명문 가문이었으나 심사정의 조부 심익창(沈益昌)이 과거 시험 부정사건으로 귀양을 갔으며, 이후 해배되어 돌아왔으나 연잉군(이후 영조) 시해 미수사건에 연루되면서 대역죄인의 집안으로 전락하였다. 이런 집안의 내력 때문에 심사정의 일생은 불우하게 보였으며 당대 최고의 화가였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1748년(영조 24) 숙종의 어진 보수를 위해 어진모사(御眞模寫) 중수도감(重修都監)이 설치되면서 첫 관직인 감동관(監董官)에 임명되었으나 한달 만에 파직되고 말았다. 어려서는 정선의 문하에서 그림을 공부하였고 이후, 스스로 깨쳐 중국의 남종문인화(南宗文人畫)를 완벽하게 토착화시켜 새로운 문인화풍을 확립하였다. 그림은 화훼(花卉), 초충(草蟲)을 비롯 영모(翎毛)와 산수에도 뛰어났다. 김홍도(金弘道)와 함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산수화 150 여점을 비롯 총 300 여점의 작품이 전해지고 있다. (두산백과) 명문가의 후손으로 산수화뿐 아니라 화조화, 인물화에 이르기까지 못그리는 것이 없었던 심사정은 당시에 “나라 안에서 제일(國中第一)”인 문인화가로 평가받았다. 그는 평생 동안 대역죄인의 후손이라는 멍에를 쓰고 불행하게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를 극복하고 화파나 화법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조선 후기의 어떤 화가보다도 다양한 화풍을 깊이 이해하고 폭넓게 수용하여 여러 분야에서 자신만의 개성적인 작품세계를 펼쳐보였다. (한국의 미술가)

### 〈2022년 沈門달력 배부계획 안내〉

2022년 沈門달력은 벽걸이와 탁상용 2종류로 제작하며,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인쇄부수를 결정합니다. 沈門달력은 비매품이며, 청송심씨중보를 구독하며 년 1만원 이상 대중회에 찬조금을 기부하는 국내외 일가분들께 오는 11월경 배부할 계획입니다. 대중회(02-2267-7857, 9339)나 지피중회 등을 통해 주문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지 맹호도(猛虎圖): 1774년. 종이에 담채(96cm×55.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호랑이 그림 중에서도 뛰어난 짜임새와 묘사력을 보여준다.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 웅장스러운 표정, 전신을 감싼 터럭의 생생한 질감, 꼬리를 곤두세우고 유연하게 몸을 틀어 앞을 노려보는 몸짓 등이 팽팽한 긴장감을 주고 있다.

▶ 여름 장마철에 산간의 비오는 경치를 묘사했다. 원편 위에 천고절작(千古絶作)으로 끝을 맺는 평시(評詩) 한 구절이 초서체로 쓰여 있다.



12월 촉잔도권(蜀棧圖卷): 1768. 종이에 담채(58.0cm × 818.0cm): 부분도 간송미술관 소장, 보물 제1986호



2월 춘농(春弄): 1747. 비단에 담채(25.0cm x 18.0m) 개인소장

▲ 매화나무는 흔히 임금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그림 주인공은 딱따구리이다. 아무리 쪼아도 구멍이 뚫리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는 현실을 자신의 처지에 빗대 표현하고 있다.



7월 하경산수(夏景山水): 18세기 중엽. 종이에 담채(33.5cm x 41.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촉(蜀)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을 그린 두루마리 산수화이다. 8m가 넘는 대작으로 대한민국 보물이다. 변화무쌍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색감과 치밀한 구성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특별기고

# “심문의 찬란한 역사, 디지털 아카이브로 보존하자”



심익섭 (沈門달력디자인위원회 위원장·동국대 명예교수)

조선왕조 내내 우리 심문은 나라를 선도했고, 거기에 걸맞은 명성을 얻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500년 전 선조들이 어떤 삶을 영위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조선왕조 최고의 명문가의 후손답게 조상의 찬란한 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선조에 견줄만한 감동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가.

조선왕조 최고의 건국공신 정안공 심덕부(청성백) 할아버지를 소개한 군산 진포대첩기념탑의 내용이 잘못돼 있고, 경북궁 신도궁궐조성도감 판사로서의 명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우리 후손의 무관심 탓이다. 대종회는 다른 어떤 가문도 시도하지 않은 대종회 달력을 만들어 2022년에도 배포한다. 그런데 이 달력을 만들기 위해 전국 지파총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상들의 유물을 추천해 달라고 했으나 전혀 반응이 없었다. 슬프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심문의 찬란한 역사나 자긍심을 보존하는 데 소홀하면 누가 그 일을 해줄 것인가. 아무도 없다. 모든 일이 역사가 되지 않고, 기록된 것만이 역사가 된다. 기록된 역사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우리가 기록과 보존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MZ세대가 이끌어갈 포스트코로나 시대엔 제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디지털화가 일상이 될 것이다. 대중회도 이미 인터넷 족보를 만드는 등 디지털 시대에 한 발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파총회의 소장품이나 자료들, 곳곳에 산재해 있는 조상들의 유산을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를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한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디지털이 미래를 선도할 사회를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우리 조상의 자료부터 제대로 챙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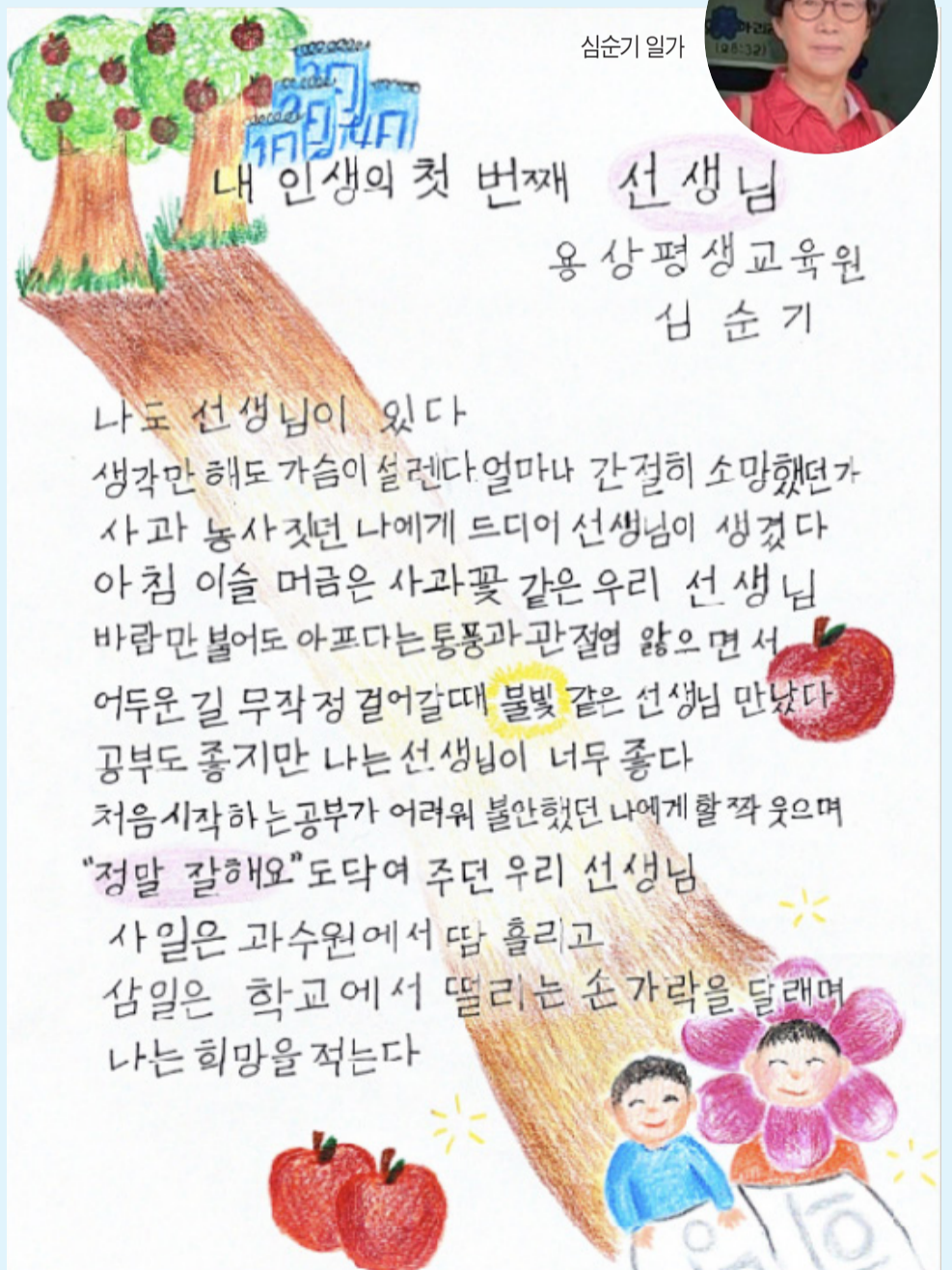
## 까막눈이었던 69세 심 할머니가 전국 장원에!

‘2021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경북 안동시 용상평생교육원에 다니는 심순기(69) 일가의 작품이 시화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시화전은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매년 개최한다.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 중에서 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이다.

심순기 일가는 ‘내 인생의 첫 번째 선생님’이라는 시화작품을 제출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 일가는 이 글에서 배우는 기쁨을 알려준 선생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며 “공부도 좋지만 나는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했다. 심 일가의 글에는 어려운 글자나 표현이 없다. 그러면서 선생님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나타내고 있다. 글의 힘은 문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을 실감하게 만든다.



심순기 일가



심순기 일가가 쓰고 그려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

## 뛰어난 삽화가 17세 심설아



프로 못지않은 고교생 삽화가가 탄생했다. 심설아 양. 현재 진접고등학교 1학년이다. 심 양은 8월에 나온 《달 타는 날》이라는 동시 에세이집의 삽화를 그렸다. 이 책은 동시 작가인 강순애 씨의 작품집이다. 심 양은 맑고 포근하고 부드러운 그림으로 이 책의 분위기를 살렸다. 두 사람은

1년 전에 알게 돼 함께 작품집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 위 그림은 에세이집에 실린 심 양의 작품 중 하나이다.



심설아

공지사항

《청송심씨중보 1가정 1부 구독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국내외 30만 일가분들의 소식, 족보수단 안내, 장학금 신청공고 및 선조 사적지 소개 등의 기사로 격월 발행하는 청송심씨중보는 청송 심문(沈門)의 정보지입니다. 대중회는 연회비 10,000원 이상 찬조 하는 구독자 10000명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참신한 기획과 참여일가 확대, 편집위원 보강 등 모범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보 구독신청은 받으실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아래 연락처 등으로 알려주시고, 아울러 중보 발전에 기여하실 일가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신청 : 전화 02) 2267-7857, 2267-9339 팩스 02)2269-7755 또는 밴드, 페이스북》

☞ 중보 찬조금 송금계좌 ☞ <농협 301-0134-7557-61 청송심씨대중회>

☞ 임원회비 송금계좌 ☞ <농협 301-0107-5873-71 청송심씨대중회>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장학기금 기부계좌 안내

(재) 청심장학회는 청송심문을 빛낼 인재육성을 위해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예·체능 특기생 유망주 등을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발행 청송심씨중보, 청심장학회 홈페이지 등에 『장학생선발공고』를 게재합니다.

청송심씨 후손 뿐만 아니라 외손 등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가 많이 신청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청심장학회 운영에 뜻을 함께 해주실 일가분들의 장학기금 기부 동참도 환영합니다.

문의처 02) 2267-7857, 2267-9339

☞ 장학기금 기부계좌 ☞ <농협 301-0256-8973-11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2021년도 추향 일정 안내

일 시	세(世)	장 소	주차장 주소
10.14(목)12시	시조 문림랑공	청송군 청송읍 덕리 산33	덕리 427
10.16(토)11시	2세조 합문지후공	함열읍 남당리 산64-1	남당리243-1
10.18(월)11시	3세조 청화부원군	안성시 당왕동 산19-6	당왕동 290
10.20(수)11시	4세조 정안공배위 (청주송씨)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	아미리 554
10.22(금)11시	4세조 배위 (청주송씨)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65-1	분평동 262
10.30(토)11시	2세조 봉익대부공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산31	양지리 791

\* 올해 추향(秋享)도 코로나 19사태를 감안하여 대중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일부 후손이 모여 간소하게 봉향할 계획입니다. 참사(參祀)를 희망하시는 일가분께서는 제향일 5일전까지 대중회 총무이사(010-5591-0055)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제150호 5면 역대편집인 심상필 사진을 바로 잡습니다.



심상필(중보 제1호 ~ 10호)

중보 제150호 10면 · 11면 국내외 지파종회 추가 및 명칭을 바로잡습니다.

- (추가) 진주종회 - 경남 진주시
- (명칭 · 주소 정정) 청양군종회 - 경기 파주시
- 침정공파종회 - 인천 서구 공촌동
- 청헌공파공주종회 - 충남 공주시
- 산청목곡종회 - 경남 산청군

\* 중보 사진, 지파종회 명칭 오류 등으로 인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정정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중회 재무이사 및 총무이사로 다년간 (1985~2003) 봉직하신 沈寬錫님께서 향년 95세로 8월 5일 별세하셨습니다. 故인의 冥福을 빕니다.

각종 찬조현황(2021. 7. 16 ~ 2021. 9. 15)

■ 각 50만 원 이상 찬조시 2회 사진게재



심상민 재중동포(중국청도) | 심준섭 대구경운대 교수 | 심규화 울산내금융위중회 회장 | 심정보 풍천공파가선 대부공중회 회장 | 고심인구 대중회대동세보 편찬회 위원 | 심우창 인천서구 의회의원 | 심상국 철원중회 회장 | 심노진 용인중회 회장 | 심무섭 안효공중회 회장 | 심상욱 캐나다중회 회장

중보찬조 50만원 2021년5월 | 장학찬조 100만원 2021년6월 | 중보찬조 150만원 2021년7월 | 중보찬조 50만원 2021년7월 | 장학찬조 100만원 2021년7월 | 중보찬조 100만원 2021년8월 | 중보찬조 50만원 2021년8월 | 장학찬조 200만원 2021년9월 | 중보/달력찬조 600만원 2021년9월 | 중보찬조 50만원 2021년9월

중보찬조

- 500만원 안효공중회(회장 무섭)
- 100만원 우창(인천)
- 50만원 풍천공파가선대부공중회(회장 정보), 철원중회(회장 상국), 캐나다 중회(회장 상욱)
- 10만원 준구, 민섭(광주금당산중회), 호섭(육사 교수), 재준(부평), 재호(부안), 춘섭(서울), 현중(광주), 윤섭, 재운(동탄)
- 5만원 춘택, 명섭(순천), 문석(일산), 기연, 관섭
- 3만원 백규(서울), 재중, 재동, 재수
- 2만원 웅택(인천), 효섭
- 지로중보찬조 59,540

임원회비

부회장 회비 30만원 상국(철원)  
이사회비 5만원 춘택(원주), 문석(일산), 동섭(철원), 상규(철원), 상환(서울)

장학찬조

200만원 용인중회(회장 노진)  
100만원 현식(고심인구)  
2만원 준호(청송), 재희(일산)

달력찬조

100만원 안효공중회(회장 무섭)